

# “삼매 없는 요가 안타까워...”



원외법 교수

요가의 오래된 맛과 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스턴트식품처럼 퍼져가는 요가 수련원, 그리고 기계적인 아사나에 목마른 요기(yogi·요가수행자)들을 바라보는 노 교수의 마음이 편치 않다.

“요가는 삼매입니다. 일체의 본바탕이자 심법(心法)입니다. 철학을 잊고 수련하는 수행자들이 안타깝습니다.”  
동국대 원외법(83) 명예 교수가 7월 10일

## “국내 대다수 요가수련원 기본 철학조차 안 가르쳐”

서울 신촌의 홍익요가연구원에서 <요가수트라> 원전 강의를 시작했다. 40여명의 수련생들은 인도철학의 대가가 풀이하는 요가경전 강의를 듣기 위해 휴일 아침도 반납한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요가수트라>는 기원전 200년경에 인도의 파란잡리가 저술한 요가경전으로, 고전 요가를 대표하는 요가철학의 중심 사상서. 원 교수는 기본적인 요가철학의 보급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국내 요가수련원 현실을 비판하며 요가수트라 원전 강의를 자청했

## ‘요가수트라’ 강의 나선 인도철학의 대가 원외법 교수



7월 10일 서울 신촌의 홍익요가연구원에서 ‘요가수트라’ 강의에 나선 원외법 교수.

다.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생각하는 이승용 홍익요가연구원장이 그 뜻을 함께 나섰고, 연구원의 요가지도자·수련생들은 그것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의는 산스크리트 원문과 구문의 직역, 그리고 원 교수의 추가적인 해석으로 이뤄졌다. 원 교수는 삼매의 장, 실수련의 장, 신통의 장, 자유의 장 등 4장으로 이뤄진 경전을 하나하나 풀이하며 요가철학의 맥을 짚어 나갔다. 경전의 구절구절을 낱낱이 발음 해가면서 다양한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수십 여 년간의 연구 경력을 살려 가장 적절한 해석의 틀을 내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틈틈이 인도철학이라는 거대한

사상 체계로 시야를 확대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인도철학을 몰이라 하면, 요가철학과 불교철학도 몰입니다. 그런데 요가철학은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철학은? 경우에 따라 소금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철학은 ‘해탈’에 이르는 ‘바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닮아있다. 요가는 관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물구나무 서기’가 ‘요가 체위의 왕’이라 불리는 까닭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힘든 자세를 소화해 낸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원 교수는 “요가는 나의 에너지를 조

## 다양한 번역방향 제시 인도철학으로 시야 확대

절하고 완성하려는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이 마지막 강의라 필치 모른다’는 생각에 두 시간이 넘는 강의를 섬없는 열의로 채우는 원 교수. “요가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살아있는 대가의 강의다웠다”는 한 수강생의 말처럼, 남은 강의를 기대하는 이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열정을 10주를 보내지 않을 거라. 홍익요가연구원 = (02)333-2350 강신재 기자

## 여성운동가 새 활동 방식 ‘명상’

### “건강위해 시작...실존 문제로 깊어져”

명상이 여성운동가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정전 5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 앞에서 ‘걸기명상’을 통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인 이래 명상을 여성단체 활동 전반에 폭넓게 응용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대표 이월순)는 틈틈한 스님의 방한 이후 단체활동가들의 재충전을 위해 계몽산 수련원에서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평화화합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이길현숙·김숙임·심영희)는 3년 전부터 ‘평화심

성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한 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으로 명상을 생활화하는 여성운동가들도 적지 않다. 여성연합 대표 출신인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마음공부 ‘방하(放下)’ 수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는 요가적 삶을 주창하는 ‘에코(eco)요가’의 대표주

자로 꼽힌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 부대표를 지낸 왕인순 씨는 여러 명상법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심리학과 요가치료학을 공부할 정도로 전문가다.

이상영 여성연합 대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한 여성운동가들이 이제는 실존적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명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선의 세계 52

## 교외별전(敎外別傳)-12

서양학자들은 선종을 두고 흔히 “우상타파적”(iconoclastic)이라고 말한다. 우상이라 하면 우선 신상(神像)이 떠오르고, 불교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불상(佛像)과 보살상(菩薩像), 그리고 각종 신중상(神衆像)이 있다. 우상타파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두들겨 부순다는 건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선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두들겨 부수지는 않는다. 선종 사찰에도 불보살상, 나한상, 신중상을 다 갖추어놓고 심지어 칠성각, 산신각까지 있다. 탑도 많다. 그 안에서 절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선종이 우상타파적이라니? 한국에서 크리스티교,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불교를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선종이 가장 우세한 종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것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로, 종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숭배할 때 그 숭배대상이 된 상대적인 것, 세속적인 것, 피조물, 종을 편의상 우상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예로 쉽게 꼽히는 것이 신상에 대한 숭배이다. 하지만 신상, 불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작은 예일 뿐이다. 크리스티교에서도 이해가 좀 얕은 이들이나 우상숭배를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지, 품위 있는 신화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크리스티교에서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신앙의

## 서양학자, 선종의 특징 ‘우상타파’ 꼬아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것도 우상숭배

하기는, 우상타파라고 할 때 생각나는 선의 일화가 있기는 하다. 옛날에 어떤 선사가 수행하다가 너무 추워서 법당의 목불(木佛을 쪼개서 군불을 뿜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일화는 아주 드문 예외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오죽하면 이야기로 남아 전해질까? 만약에 선종 사찰에서 불상을 다치워 버리고 참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일화는 이야기 거리도 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면, 학자들이 선종을 두고 우상타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핵심은 나 자신이 피조물로서 이를 테면 조물주의 종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한 개체로 만들어져 존재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내가 잘났다는 의식이 없을 수 없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살게 된다. 심지어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점조차 있는다. 조물주와의 관계를 끊는 셈이다. 여기에서 예를 드는 신화사상에서는 그것을 두고 원죄라고 풀이한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두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런 깊은 뜻을 읽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한 것은 신상이나 불상처럼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존재의 형상을 빚어놓은 것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초월적인 것, 초경험적인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달리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세간적인 것을 초세간적인

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웬 크리스티교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는 게 할지도 모르겠다. 다 연관이 있다. 특히, 불립문자라는 선의 방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상이라는 개념을 그와 같이 넓혀서 보면, 선과 대조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달리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세간적인 것을 초세간적인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명동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wiz@hanmail.net

## 파동명상을 통한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 과정

◆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빙의령을 찾아내어 타인의 영적문제(빙의현상)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빙의 전문 치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에 빙의령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빙의령을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매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① 빙의전문 치유 마스터반: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과정으로 4일간 수련후, 수료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방송출연**

-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3년 3월 i-TV 위험한 초대 출연
-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4년 7월 SBS 세상발전 유레카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017-587-0777 · 02)996-6156 · 051) 806-8500, 817-6156

## 승복 법복 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 광목(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역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 영동면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후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리트형강판  
슬라브, 시합,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